

한국 양궁, 금 5개 '씩씩이' 노린다

'한국-영국, 축구로 더 가깝게'

주한영국대사관, 토트넘 방한 환영행사 개최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2개 모두 수확
남·녀 개인전, 혼성 경기 남아
김우진·임시현 3관왕 가능성

한국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 2개를 모두 수확하면서 전 종목 석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남자 양궁 대표팀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5-1(57-57 59-5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임시현,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으로 꾸려진 여자 양궁 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에 이어, 남자 대표팀도 정상에 오르면서 2016 리우 데자네이루,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남자 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증명하듯 압도적 기량을 보였다. 특히 생애 첫 올림픽인 이우석이 결승전 6발 모두 10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의 일등 공신이 됐다. 금메달 두 개를 수확한 한국 대표팀은 혼성전과 남녀 개인전까지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

올림픽보다 어렵다는 양궁 선발전들을 통과해 단체전을 합작한 선수들인 만큼, 모두가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25일 진행된 랭킹 라운드에서 3명 모두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김우진은 688점을 쏘 전체 1위



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이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올림픽 사상 10번째 금메달을 올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를 기록했는데, 전체 72발 가운데 43발을 10점에 꽂아 넣었다. 김제덕은 682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우석이 681점으로 5위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 임시현은 랭킹 라운드에서 694점을 쏘며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남수현은 688점으로 2위, 전훈영이 664점으로 13위에 올랐다. 김우진은 30일 오후 9시36분 이스라엘 마다에(차드)와 맞대결을 벌인다. 이후 치르는 32강까지 승리하면 내달

4일 본격적으로 메달에 도전한다. 임시현은 2일 오전 1시32분 알론드라 리베라(푸에르토리코)와 격돌한다. 승리할 경우 3일 16강을 거쳐 결승전에 나선다. 내달 2일 열리는 혼성전에는 남녀부 랭킹 라운드 1위를 차지한 김우진과 임시현이 출전한다. 한국 대표팀은 랭킹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로 혼성전 조합을 꾸렸다. 이미 금메달을 한 개씩 수확한 김우

진과 임시현이 3관왕에 오를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김우진은 3번째 올림픽에 나선 베테랑인 만큼, 국제 대회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 임시현은 올림픽은 첫 출전이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혼성 경기는 2일 오후 5시27분 대만과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뉴시스

주한영국대사관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한국 투어 시작을 알리기 위해 클럽 이사진과 함께 '웰컴 투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다.

풀럼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30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웰컴 투 코리아' 조찬 리셉션 행사를 열어 한국을 방문한 토트넘 이사진을 맞이했다.

행사에는 토트넘 이사진을 포함해 영국 외교·재계 고위 인사가 참가했다. 또 토트넘 소속으로 10년 동안 톨 오스발드 아르딜레스가 홍보대사 자격으로 동석했다.

도나 마리아 컬런 토트넘 총괄디렉터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토트넘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자신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어린 선수들을 위한 코칭 클리닉을 제공하고 열정적으로 반겨주는 한국 팬과 계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흥민이 한국에서 받은 엄청난 환대는 그가 우리 클럽과 한국 모두에

게 얼마나 훌륭한 홍보대사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축구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룩스 대사는 "축구는 한국과 영국이 모두 열광하는 스포츠다. 토트넘 같은 세계적인 팀이 한국을 네 번째로 방문했다. 주장 손흥민은 한국과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문화와 스포츠가 두 국가 국민을 더 가깝게 만드는 좋은 예시"라면서 "이번 방문은 경기장 안팎에서 두 나라의 우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31일 프로축구 K리그을 대표하는 팀 K리그와 다음 달 3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앞두고 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한국 투어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트넘은 팀 K리그전과 뮌헨전을 차례로 마친 뒤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 /뉴시스

국립군산대,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대부 단체전 우승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창단 처음으로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대부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국립군산대 소프트테니스(정구)팀은 최근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국제소프트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 대전대를 2-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첫 복식에서 여정현-문승상 조가 패배했으나 이어진 단식에서 이희성과



복식 이주왕-이준석 조가 승리를 따내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국립군산대 소프트테니스팀은 2012년 창단 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기를 제패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의 값진 銀

"할머니께 은메달 보여줄 수 있게 돼 행복"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57kg급 2위에 올라
재일교포지만 할머니 유언 따라 한국 국적 선택
"태극마크 달길 잘해... 자랑스럽고, 결승까지 올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허미미(22) 선수가 한국 여자 유도도 8년 만에 메달을 따낸 가운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지난해 일본 국적을 포기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허미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다. 허미미는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경북 지역에 항일 격문을 붙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육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으로 알려졌다.

허미미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일본 도쿄로 재일교포다.

여섯 살 때 처음 도복을 입었다.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유도 선수 출신 아버지를 따라 도복을 입게 됐다. 중학교 3학년 때 전일본 중학유도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일본 유도 기대주로 성장한 그는 2021년 한국행을 결심했다. 특히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지난해 일본 국적을 포기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 허미미에게 태극마크는 남다른 의미다.

허미미는 경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상대에 서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감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 애국가 가사도 거의 외웠는데 아쉽기는 하다"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허미미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상 드 마르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앞서 허미미는 국제대회에 나실 때마다 한국 국적 취득을 권유했던 할머니가 많이 떠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은메달을 딴 후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는 "할머니께 금메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허미미는 "그래도 은메달을 보여줄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유도를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미미는 "태극마크를 달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고, 결승까지 올라가 메달을 따게 돼 행복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도를 했었던 아버지에게도 어서 메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아버지가 잘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따 통화하면서 은메달을 보여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한편 세계랭킹 3위 허미미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상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세계 1위 데구치에 연장전(골든 스코어) 끝에 반칙패했다.

아쉬운 패배였다. 정규시간(4분) 동안 지도 2개를 받은 허미미는 연장전에서 계속 업어치기를 시도해 데구치의 지도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연장 2분35초째 위장 공격으로 지도 하나를 더 받아 반칙패가 확정됐다.

허미미는 결승을 마친 뒤 "너무 아쉽다. 위장 공격이 좋은 몰랐는데 경기니까 어쩔 수 없다"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유도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메달로 돌아와서 기분이 좋다. 응원을 많이 듣고 경기하는 것이 처음이라 경기 자체는 재미있었다"며 "5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기대도 되고, 부담도 있었는데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여자 유도가 메달을 딴 것은 2016년 리우 대회 여자 48kg급 정보경 은메달 이후 8년 만이다. 여자 유도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노메달' 수모를 겪었다.

또 허미미의 은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유도의 첫 메달이다. 그의 메달로 한국 선수단의 분위기가 한층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A
M
T
I
E

Trio

Amitie

2024. 8. 9(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SCRIBING BACK
김민준, 이준석, 글래
"DELUSS" 브라운

예약번호하기

티켓 | 전석 3만 원

예약 | L&M 예약 "Amitie" 검색

주최·주관 | "문화공간 이름"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 이름" ☎ 063. 223. 5323

후원 | "문화공간 이름" 후원회